

나쓰메 소세키 작품 『소레카라(それから)』에 나타난 아이의 죽음 연구*

權赫建**

目次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소레카라』에 나타난 일본의 사회상
 4. 나카네 교코(中根鏡子)의 유산(流産)과 투신자살 미수사건
 5. 『소레카라』에 나타난 아이의 죽음
 - 5.1. 아이의 죽음
 - 5.2. 아이의 죽음 이후 히라오카(平岡)의 심리변화 분석
 - 5.3. 아이의 죽음 이후 미치요(三千代)의 심리변화 분석
 6. 결론
-

1. 서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작품 속의 주인공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유산·조산·사산하는 불길한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 독자에게 흥미로움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그의 전기삼부작 이후 작품 가운데는 젊은 남자 두 사람에게 젊은 여자 한 사람, 독신자, 혹은 독신자 의식을 갖고 있는 등장인물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소레카라(それから)』·『문(門)』·『히간스기마데(彼岸過迄)』·『마음(こころ)』 등의 작품 속에는 개성적인 젊은 남녀가 등장하지만 주인공들 부부에게는 태어난 아기가 죽거나 유산(流産), 조산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2003AA009)

** 동의대학교 교수 일본근대문학

(早産), 사산(死産),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불길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¹⁾

그러나 나쓰메 소세키의 전 작품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예를 보면 『행인(行人)』의 주인공 오나오(お直)는 아이를 갖는다. 그리고 후기 작품인 『미치쿠사(道草)』에서는 주인공 오스미(お住)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소세키 작품에서 아이를 갖는 주인공은 『행인(行人)』의 오나오와 『미치쿠사(道草)』의 오스미 뿐이라고 생각된다.

『미치쿠사(道草)』에서 「오스미(お住)」는 산파가 없는 조용한 밤에 아이가 「이제 나와요」하고 남편인 「健三(健三)」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참아온 것 같은 소리를 한꺼번에 쏟아냄과 동시에 태아(胎兒)를 분만했다. 『미치쿠사(道草)』에서 출산하는 장면을 그린 것은 나쓰메 소세키 작품 중에 매우 드문 경우이다.²⁾

본고에서는 부부에게 있어서 「아이의 생존」에 대하여 『소레카라』 작품 발표 당시의 일본 사회에 존속했던 제도와 풍습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위와 같은 자료 수집을 통해 당시 사회의 여성과 아이와의 관계에 대하여 점검해 보겠다. 또한 소세키의 부인 나카네 교코(中根鏡子)의 유산(流産)과 이후 투신자살 미수사건이 작자의 정신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아이의 죽음 이후 히라오카(平岡)와 미치요(三千代)의 심리변화 모습 분석을 통해 「아이의 죽음」이 히라오카 부부의 애정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점검해 보겠다.

작품 『소레카라(それから)』를 포함한 나쓰메 소세키 작품에 대한 표기가 국내에서 아직 정착된 상태가 아니다. 때문에 『소레카라』 한 작품을 연구자에 따라 『소레카라』·『그 후』·『그리고』·『그리고나서』로 표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작품 『それから』가 제목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본 원음 그대로 『소레카라』로 표기하겠다. 그러나 국내에 작품명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소세키 작품은 『마음(こころ)』·『문(門)』과 같이 표기하겠다.

2. 선행연구 고찰

이제까지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에서 발표된 『소레카라』 연구물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편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일본과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물 숫자만 어렵 잡아도 500편 이상이다. 그 가운데는 오치 하루오(越智治雄) 씨의 「『소레카라』論」(1966년) 등 작품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다³⁾

1) 佐佐木充 「母の不在 父の不在」(『夏目漱石・作家とその時代』, 有精堂 1988年1月) 182면 참조

2) 夏目漱石 『道草』 「80」(岩波書店, 1993, 05) 220~222면 참조

3) 生方智子 「『それから』論ベスト30」(『漱石研究』 「第10号, 翰林書房, 1998年5月) 135~141면 참조

참신하고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소레카라』 논문 두 편을 소개하면 사이토 히데오(齋藤英雄) 씨의 「「진주반지」의 의미와 역할-『소레카라』의 세계-」(1985년)와 야마모토 가쓰마사(山本勝正) 씨의 「소세키 『소레카라』의 방법-「바람」의 묘사를 중심으로」(1992년) 등이다. 사이토 히데오 씨는 작품 속의 남성이 여성에게 진주 반지를 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했다.⁴⁾ 야마모토 가쓰마사 씨는 작가가 『소레카라』에서 사용한 「바람의 묘사 방법」에 대하여 다각도로 철저하게 점검했다.⁵⁾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소레카라』에 관한 연구물은 36편 이상이다. 국내에서 이제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물 가운데 「나쓰메 소세키 작품 『소레카라』에 나타난 아이의 죽음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물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본 논문과 똑같은 연구 테마는 발견하지 못했다.⁶⁾

3. 『소레카라』에 나타난 일본의 사회상

『소레카라』가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110회에 걸쳐 연재된 것은 1909년 6월 27일부터 동년 10월 14일까지이다. 당시 나쓰메 소세키는 만 나이로 42세였다.

작품에 나타난 「아이의 죽음」과 관련하여 당시 시대의 아이의 출생률과 사망률, 임신부 사망률과 아이의 첫돌까지의 생존율, 여성과 아이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일본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대정(大正) 10년대(1921~1925)부터 소화(昭和) 20년대(1945~1954) 후반에 걸쳐서이다. 이 시기는 의학의 발전과 공중 위생의 진보의 결과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많았지만 신생아의 사망률이 감소해 다산소사의 시대였다. 그 이전 시대였던 근세시대 270년 간은 대체로 일본 인구가 2,700만 명 정도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 이 근세시대에는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만큼이나 신생아의 사망률도 높아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이른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시대였다.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되어 발전되어 왔던 명치시대까지만 해도 부친은 「지진, 천둥, 불」과 비견될 정도로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⁷⁾ 명치시대에는 1천명의 임신부 가운데 출산을 하다가 3~4인 정도가 사망했다. 임신부 사망뿐만 아니라 1900년 明治

4) 齋藤英雄 「「眞珠の指輪」の意味と役割-『それから』の世界-」(『夏目漱石Ⅲ』, 有精堂, 1985年 7月) 148~159면 참조

5) 山本勝正 「漱石『それから』の方法-「風」の描寫を中心に-」(『自然日本文學』, 廣島女學院大學, 1992年7月) 117~157면 참조

6) 권혁건 「한국에 있어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연구』 「창간호」, 제이엔씨, 2001년5월) 90면 참조.

7) 長谷川慶太郎 『挑戰する韓國』(光文社, 1986年10月) 32면 참조

33)경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가 첫돌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84%밖에 되지 않았다. 태어나서 첫돌이 되는 시기에 100명중 16명은 사망했던 것이다 때문에 명치시대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잘 기르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건 대사업(大事業)이었다.⁸⁾

현재보다 봉건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던 명치시대에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아내로서의 자리가 확실하게 확립됨을 의미했다. 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은 석녀(石女)라고 일컬어져 친정에 돌려보내지는 일도 있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 최대의 악덕(惡德)으로 여겨지는 풍조가 있었다. 석녀(石女)는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나 배척되었다.⁹⁾ 때문에 아내에게 있어서 출산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고 가문의 보존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시대였다.¹⁰⁾

위와 같은 명치시대 아이의 출생률과 사망률, 임신부 사망률과 아이의 첫돌까지의 생존율, 결혼한 여성과 아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작품 『소레카라』에 나타난 '아이의 죽음'은 당시 시대의 일본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4. 나카네 교코(中根鏡子)의 유산(流産)과 투신자살 미수사건

나쓰메 소세키는 1896년 6월 만 나이 29세 때에 나카네 교코(中根鏡子)와 중매 결혼했다. 결혼 한 이후 소세키와 처 나카네 교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2남 5녀(二男五女)였다.

나쓰메 소세키와 나카네 교코가 결혼한 후 만 1년째인 1897년 6월에 친아버지 나쓰메 나오카쓰(夏目直克)가 사망했다. 소세키는 아내 나카네 교코를 데리고 큐슈(九州) 구마모토(熊本)에서 고향인 도쿄(東京)로 상경했다. 나카네 교코는 결혼한 이후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1년 만에 도쿄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와 기차편이 발달되어있지 않은 때에 큐슈(九州) 구마모토에서 도쿄까지는 당일로는 갈 수 없는 먼 거리였다.

구마모토에서 도쿄까지의 장거리 여행이 원인이 되어 나카네 교코는 결혼하여 처음으로 임신한 아이가 유산(流産)되었다. 아이가 유산된 이후 건강이 나빠진 나카네 교코는 친정 집에서 빌린 가마쿠라(鎌倉) 별장에서 요양을 했다.¹¹⁾

아이를 유산한 나카네 교코는 정신적으로 크게 쇼크를 받았다. 유산한 이후 정신상태

8) 武田建 『親と子の臨床心理』(創元社, 1975년8月) 26~27면 참조

9) 大島建彦 外5人編 『日本を知る事典』(社會思想社, 1982년11月) 4~5면 참조

10) 앞의 책, 武田建 『親と子の臨床心理』, 93~241면 참조

11) 宮井一郎 『詳傳夏目漱石』「上卷」(國書刊行會, 1992년1月) 292~294면 참조

가 불안정해졌고 자주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1897년 10월에 가마쿠라 별장에서 요양했던 나카네 교코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큐슈 구마모토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듬해인 1898년 6월말 또는 7월 초순경 이른 아침에 나카네 교코는 구마모토현 熊本縣의 자택 가까이를 흐르고 있는 수량(水量)이 많은 시라카와(白川)의 이가와부치(井川淵) 하천에 뛰어들어 투신자살을 기도했다.¹²⁾

나카네 교코가 투신자살을 기도했지만 다행히 주위에 있는 어부에게 구해져 목숨을 건졌다. 나카네 교코가 투신자살을 기도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복잡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유산한 이후의 스트레스와 히스테리 때문이었다.¹³⁾

투신자살 사건 이후 나카네 교코는 한때 음식은 물론 물까지 마시지 않았던 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갔다. 이후 마음의 안정을 찾은 나카네 교코는 1899년 5월말 구마모토에서 장녀 후데코(筆子)를 낳았다.

나카네 교코의 유산(流産)과 히스테리에 의한 투신자살 미수사건은 나쓰메 소세키의 정신세계에 유형무형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아내 교코(鏡子)의 유산과 투신자살 미수사건은 「아이의 존재 가치의 중요성」·「유산」·「태어난 아이의 죽음」등 어떤 형태로든 『소레카라』를 포함한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자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얻은 체험과 경험은 은연중에 작품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 습득하지 않은 부분이 작품에 나타났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5. 『소레카라』에 나타난 아이의 죽음

5.1. 아이의 죽음

『소레카라』뿐만 아니라 나쓰메 소세키의 다른 작품에서도 아이의 문제는 비중 있게 묘사되어 있다.

『문(門)』의 주인공 소스케(宗助)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아내인 오요네(およね)는 소스케와 함께 사는 동안 세 번 임신을 했다. 하지만 오요네는 유산(流産)·조산(早産)·사산(死産)이라고 하는 출산의 실패를 그림을 그리듯이 되풀이했다.

12) 三好行雄編 『夏目漱石事典』(學燈社, 1990年2月) 396면 참조.

13) 앞의 책, 宮井一郎 『詳傳夏目漱石』「上卷」, 316면 참조.

『히간스기마데(彼岸過迄)』에서는 마쓰모토(松本) 막내딸 요이코(宵子)가 저녁식사 도중에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잠든 아이처럼 그대로 숨이 끊어져 버렸다. 요이코(宵子)의 죽음은 병명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급사(急死)였다.

『마음(こころ)』의 주인공 선생 부부 사이에는 웬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부인인 시즈(靜)는 「아이라도 있으면 좋겠군요」라고 말하지만 선생은 「아이는 천벌(天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고 냉혹하게 말했다.

위와 같이 『소레카라』·『문(門)』·『히간스기마데(彼岸過迄)』·『마음(こころ)』 등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부부에게는 태어난 아이가 죽거나 「유산(流産)·조산(早産)·사산(死産),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불길한 사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¹⁴⁾

『소레카라』에는 당시 시대에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라고 여겨지는 다이스케(代助), 히라오카(平岡), 스가누마(菅沼)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대학시절의 친구인 다이스케와 히라오카 사이에 스가누마의 여동생 미치요(三千代)가 끼어 들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결혼을 둘러싼 삼각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러므로 『소레카라』의 구조는 처음부터 비극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여겨진다.

미치요(三千代)는 원래 도쿄 근교에 있는 현(縣) 출신으로 다이스케와 히라오카의 학교 친구인 스가누마(菅沼)의 여동생이었다. 고향에서 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나이는 18살 때에 오빠인 스가누마가 고향에서 도쿄로 데리고 온 것이다. 스가누마는 미치요가 도쿄로 올라오자 하숙집에서 나와 그녀와 함께 자취생활을 했다.¹⁵⁾

그 후 스가누마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도쿄로 올라와 아들인 스가누마 집에 머무는 동안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려 사망한다. 불행한 것은 병원에 드나들던 스가누마도 자신의 어머니가 앓았던 병인 장티푸스에 전염되어 사망한다.

미치요의 오빠인 스가누마가 살아 있을 때 다이스케와 히라오카는 자주 친구인 스가누마 집에 놀러 갔다. 친구 스가누마 집에 놀러 다니다가 미치요와 다이스케는 친숙한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그 당시 다이스케는 친구인 히라오카보다 먼저 미치요와 사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친구인 히라오카가 미치요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난 후 다이스케는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서 친구의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 「친구의 본분(本分)」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려는 욕망을 참고 친구의 사랑을 성취시켜 주려고 하는 다이스케의 「의협심(義俠心)」, 때문에 미치요와 히라오카는 다이스케의 주선(周旋)에 의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다.¹⁶⁾

다이스케의 주선에 의해 미치요와 결혼한 히라오카는 결혼과 동시에 자신이 근무하고

14) 『나쓰메 소세키 文學世界』(학사원, 1998년3월) 298 ~319면 참조

15) 夏目漱石 『漱石全集』「第4卷 三四郎 それから 門」(岩波書店, 1966年3月) 410면 참조

16) 같은 책, 608~610면 참조.

있던 은행으로부터 게이한지방(京阪地方: 교토와 오사카지방)의 지점근무를 명을 받아 미치요를 데리고 도쿄를 떠났다.

미치요는 결혼하여 도쿄를 떠난 1년째에 게이한지방(京阪地方)에서 정상적인 출산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곧 죽었다 그 후 그녀는 심장이 나빠져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완치되기 어려운 심장병(心臟病)이라고 했다.¹⁷⁾

여성과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는 또 다른 존재, 즉 엄격히 말한다면 타자이나 내적으로는 자신의 미분화된 혼과 육체라는 특수한 관계가 상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치요는 태어난 아이가 죽은 이후 앞친대 덮친 격으로 산후(産後)에 생긴 심장병으로 고통스런 미래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5.2. 아이의 죽음 이후 히라오카(平岡)의 심리변화 분석

다이스케와 히라오카는 중학교시절부터 아는 사이로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 간은 거의 형제나 다름없이 친하게 지냈다. 다이스케는 도쿄에 돌아온 히라오카를 자신의 집에서 만났을 때 「아이의 죽음」은 참으로 애석(哀惜)한 일이라고 히라오카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이가 죽고 난 이후 「아이 소식이 없느냐」고 히라오카에게 묻는다. 히라오카는 아내인 미치요의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 말한다.¹⁸⁾

그 후 미치요가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상하여 마련해 두었던 「갓난아이의 옷」을 고리 짝에서 꺼내자, 히라오카는 「아직도 그런 것을 그대로 두었나 빨리 찢어서 걸레라도 만들어버려!」라고 아내에게 신경질적인 말을 한다. 미치요는 남편이 찢어서 걸레라도 만들어버리라는 갓난아이 옷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고 있다.¹⁹⁾

히라오카가 갓난아이 옷을 보고 미치요에게 신경질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도 낳지 못 하며 산후에 심장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히라오카는 미치요와 결혼해 게이한지방(京阪地方)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부임한 초기에는 주의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미치요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죽은 사건 이후, 그녀가 산후에 생긴 심장병으로 차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성질이 난폭해지며 방탕해지기 시작했다. 미

17) 같은 책, 366면 참조.

18) 같은 책, 337~338면 참조.

19) 같은 책, 396면 참조.

치요가 산후에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자 그와 비례해서 히라오카의 방탕한 생활은 점점 심해져갔다. 그 시점부터 히라오카는 아내 미치요를 심한 말투로 호되게 꾸짖기 시작한다.²⁰⁾

다이스케는 히라오카가 미치요를 대하는 태도가 결혼 초기보다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고 간파한다. 그는 히라오카의 미치요에 대한 사랑이 3년 전 결혼했을 때와 확연히 달라진 이유의 일부분을 「미치요의 병」으로 인해 육체상의 관계가 부부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단정했다.

또한 「아이의 사망」이 큰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히라오카의 방탕」과 「직장인으로서의 히라오카의 실패」, 「히라오카가 주색에 빠져 가정의 경제상태가 나빠진 것」 등의 이유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히라오카는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을 했으며, 미치요는 「시집가서는 안 될 사람에게 시집갔다」는 결론을 내린다.²¹⁾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의 죽음」과 함께 온 미치요의 산후 「심장병」은 히라오카가 미치요에게 불만을 갖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즉, 「아이의 사망」과 미치요의 「심장병」을 계기로 해서 히라오카가 미치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이의 죽음 사건」 이후 가정에서 아내인 미치요와의 관계가 나빠지며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히라오카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은행에서 자신의 책임에 관계되는 커다란 사건을 일으킨다. 히라오카는 직장에서 자신의 부하 세키(關)라고 하는 남자 은행원을 신임해서 여러 면에서 상담을 해 줄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그러나 이 세키(關)라고 하는 부하가 기생과의 관계로 회계에 구멍을 내는 사건을 일으켰다. 물론 세키라고 하는 부하는 이 사건으로 해고되었다. 하지만 은행의 업무상 상급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히라오카도 부득이 다니던 은행을 사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히라오카의 은행 사직만으로 매듭 되지 않았다. 세키라고 하는 부하가 써 버린 천엔(千円)에 못 미치는 돈을 히라오카는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빌려서 메워주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히라오카의 말에 의심이 가는 점도 있지만 히라오카가 지점장으로부터 빌려 메운 천엔(千円) 정도의 돈은 명치시대라는 것을 고려해서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²²⁾

1910년(明治 43) 3월의 「時事新報」 신문기사에 실린 여교원의 급료를 살펴보면 동경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한 여교원 수입은 16엔 정도였다. 명치시대 당시 여교원의 급료 16엔이라고 하는 수입은 의식주의 비용을 제외하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급료였던 것이다. 히

20) 같은 책, 363, 432~433면 참조.

21) 같은 책, 521~522면 참조.

22) 같은 책, 334~335면 참조.

라오카가 은행을 사직할 때 지점장으로부터 빌려서 메운 천엔(千円) 정도의 돈은 당시 동경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한 여교원의 약 5년간 급료에 상당하는 큰 금액이었다. 그렇다면 히라오카의 3년 간의 게이한지방(京阪地方)에서의 은행원근무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난 것이다²³⁾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한 이후 히라오카의 방탕한 생활과 직장에서의 실패는 일차적으로는 그의 성실하지 못한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아이의 죽음」과 미치요의 산후 「심장병」은 히라오카가 미치요에게 불만을 갖게 된 원인이 되었으며 그가 방탕한 생활로 빠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히라오카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결과는 은행원으로서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해야 되는 사건으로 연결된 것이다.

5.3. 아이의 죽음 이후 미치요(三千代)의 심리변화 분석

나쓰메 소세키는 『소레카라』에 묘사된 「미치요(三千代)」를 새하얀 살빛에 머리가 검고, 기름한 얼굴에 쌍꺼풀을 한 여인, 눈썹이 짙어 언뜻 보면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옛날 풍속화에 나오는 여인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작품 속에 그렸다. 미치요의 아름다운 자태는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 중에서 외모로만 본다면 가장 매력적으로 그려진 여성 주인공의 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²⁴⁾

하지만 작자는 미치요의 외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렸으나 그녀의 세밀한 심리변화 묘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삼갔던 흔적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다이스케의 심리변화는 비교적 잘 알 수 있지만 다른 등장인물들의 심리변화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미치요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과묵한 성격으로 작품 속에 설정되어 있다.²⁵⁾

작품에 묘사된 미치요는 명치시대 당시 사교계의 젊은 여성과는 풍기는 분위기가 다른 수수한 성격에 약간 침울한 분위기를 지닌 여성이다. 명랑한 성격이 아닌 미치요는 「아이의 죽음」 사건 이후 남편 히라오카의 방탕한 생활과 은행원으로서의 실패를 기점으로 해서 마음이 남편 히라오카로부터 차츰 차츰 떠나기 시작한다. 미치요는 히라오카가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자 「아이라도 살아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²⁶⁾

23) 「時事新報」1910年3月20日字 신문내용(『明治ニュース事典』「第8巻」, 株式會社毎日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1986年1月) 309~310면 참조

24) 앞의 책, 夏目漱石 『漱石全集』「第4巻 三四郎 それから 門」, 366~367면 참조.

25) 앞의 논문, 齋藤英雄 「「眞珠の指輪」の意味と役割-『それから』の世界-, 151면 참조.

26) 앞의 책, 夏目漱石 『漱石全集』「第4巻 三四郎 それから 門」, 410, 433면 참조.

히라오카와 결혼해 3년 간 게이한지방(京阪地方)에서 살다가 도쿄로 돌아 온 미치요가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다이스케가 「부인을 맞아 들였을까? 아직 미혼일까?」였다. 그 후 다이스케가 아직 미혼이라는 것을 확인한 미치요는 3년 전 결혼할 때 다이스케로부터 결혼 축하선물로 받은 비교적 커다란 진주가 박힌 진주반지를 끼고 다이스케 집을 방문했다. 미치요는 두 불을 붉게 물들이고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돈을 좀 빌려 주셨으면 해요」라고 다이스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²⁷⁾

다이스케와 미치요의 사랑의 재연되게 된 것은 미치요가 부탁한 돈을 다이스케가 마련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행위 때문이었다. 3년 만에 도쿄에 돌아 온 미치요가 다이스케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적극적인 행동이 계기가 되어 다이스케와 미치요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친숙해져 갔다.²⁸⁾

그 후 미치요는 남편이 부재중인 집에 다이스케가 찾아오자 「오래 기다리셨죠」라고 말하고 다이스케를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자신의 집안으로 안내한다. 미치요는 다이스케에게 「왜 아직도 부인을 맞아들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다이스케는 미치요의 돌연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잠시 말없이 미치요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그녀와 함께 마주보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게 된다.²⁹⁾

미치요는 다이스케가 그녀와 함께 마주보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미치요의 행동은 다이스케와 자신과의 관계를 현재와 같은 담보상태에서 좀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감(情感)의 발로(發露)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다이스케는 꽃집에서 백합꽃을 한아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젖은 꽃을 두 병에 나누어 꽃았다. 그리고 미치요를 자기 집으로 부른다. 다이스케는 새하얀 백합 꽃 향기가 감도는 공간 속에서 미치요의 긴 속눈썹이 떨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간결하고 소박하게 사랑을 고백한다. 다이스케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은 미치요는 충격과 감동을 받아 떨리는 속눈썹 사이로 눈물을 흘렸다.³⁰⁾

다이스케는 미치요에게 당신은 「히라오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미치요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빛이 창백해지며 눈도 입도 굳어지며 대단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이스케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히라오카는 「미치요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미치요는 대답은 안 했지만 얼굴에는 불안과 고통의 표정이 모두 사라지며 입술을 꼭 다문 채 조금도 움직임 기색이 없었다. 미치요는

27) 같은 책, 369~370면 참조.

28) 高橋知巳 「知識人の苦惱」(『夏目漱石全集』「別卷」, 筑摩書房, 1974年5月) 154~155면 참조.

29) 앞의 책, 夏目漱石 『漱石全集』「第4卷 三四郎 それから 門」, 519~524면 참조.

30) 같은 책 562~563면 참조.

결심을 굳힌 듯이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각오를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라고 말한다. 미치요의 이 한 마디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다이스케가 먼저 꺼낸 사랑의 고백이 미치요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³¹⁾

그 후 다이스케가 「물질상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신과 미치요와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자 미치요는 「어떤 변화가 있다해도 상관하지 않겠어요. 저는 요전 날부터 저는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을 작정으로 각오를 정하고 있으니깐요」 라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흔들림없는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다이스케에게 밝히고 울기 시작했다. 미치요가 흐느끼면서 죽음조차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말할 때 다이스케는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해가 지려고 하자 다이스케는 미치요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 장면이 작품 속에서 다이스케와 미치요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다.³²⁾

위와 같은 미치요의 행동과 의사 표시를 종합해 보면 미치요의 마음은 「아이의 죽음」 사건 이후 남편 히라오카의 방탕한 생활과 은행원으로서의 실패를 기점으로 해서 히라오카로부터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미치요의 가슴 속에서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랑에 대한 아집은 그녀 자신이 명확히 의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녀가 미혼 시절에 교제했던 다이스케 쪽으로 차츰차츰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도쿄로 올라와서 다이스케와 3년 만에 재회한 이후부터 다이스케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녀는 다이스케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3년 간 함께 사는 동안 「아이의 죽음」과 함께 온 산후의 「심장병」 이후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직장에서의 실패」 등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치요와 히라오카 부부간의 애정을 식어가게 만들었다.

남편 히라오카와의 애정이 식어버린 미치요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상대를 향한 사랑의 욕망이 꿈틀거렸으며 그녀가 명확히 의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녀의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이스케 쪽으로 차츰차츰 기울어져 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미치요가 죽음을 각오하고 다이스케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밝히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사회에 존속했던 간통죄와 자신이 낳은 아이의 장래 문제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설혹 미치요가 죽음을 각오하고 다이스케에 대한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밝히려 했다고 해도 현재보다는 좀더 많은 시간의 사고와 행동의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1) 같은 책, 567~568면 참조.

32) 같은 책, 590~593면 참조.

6. 결 론

이제까지 「나쓰메 소세키 작품 『소레카라』에 나타난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논자가 분석한 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레카라』 작품에 나타난 「아이의 죽음」은 명치시대의 출산과 태어난 아이의 생존에 관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해 보면 1900년(明治 33)경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가 첫돌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84%밖에 되지 않았다. 태어나서 첫돌이 되는 시기에 100명중 16명은 사망했던 것이다. 때문에 명치시대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잘 기르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건 대사업이었던 것이다.

둘째, 나쓰메 소세키의 아내 나카네 교코의 「유산(流産)과 히스테리에 의한 투신자살 미수사건」은 나쓰메 소세키의 정신세계에 유형무형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작자 신변에서 일어난 유산(流産)과 관련한 경험은 『소레카라』 작품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셋째, 히라오카 부부에게 있어서 「아이의 죽음」은 부부간의 애정문제에 갈등과 위기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부부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이의 죽음」과 함께 온 아내 미치요의 산후의 「심장병」은 히라오카가 미치요에게 불만을 갖게 된 원인이 되었으며 그가 방탕한 생활로 빠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히라오카가 「아이의 죽음」 이후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결과는 은행원으로서 대단히 불미스런 일로 사직해야 되는 사건으로 연결되었다.

넷째, 미치요의 심리변화 분석을 통해 결혼한 부인에게 있어 「아이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소레카라』의 작품묘사는 나쓰메 소세키 문학의 하나의 특징인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아이의 죽음」 이후 「남편의 방탕한 생활」 등은 미치요에게 그 당시 부권의 권위에 순종하고 인내(忍耐)하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살게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의 죽음」은 미치요에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표출시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남편이 있는 미치요가 죽음을 각오하고 다이스케와 남은 생애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배신자라던가 위선자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치요의 행동은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아이의 죽음」 이후 남편과의 사랑이 단절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근대여성의 새로운 사랑 추구에 대한 극한적인 아집의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參考文獻】

- 권혁진(2001) 「한국에 있어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연구』 「창간호」, 제이앤씨, P.90쪽.
- 박경희(2001)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P.416~417쪽.
- 依田明(1987) 『母子關係の心理學』 大日本圖書株式會社, P.23~26.
- 生方智子(1998) 「『それから』論ベスト30」 『漱石研究』 「第10号」, 翰林書房, P.135~141.
- 大島建彦 外5人編(1982) 『日本を知る事典』 社會思想社, P.4~5.
- 佐佐木充(1988) 「母の不在 父の不在」 『夏目漱石·作家とその時代』, 有精堂, P.182.
- 齋藤英雄(1985) 「『眞珠の指輪』の意味と役割-『それから』の世界-」 『夏目漱石Ⅲ』, 有精堂, P.148~159.
- 高橋知巳(1974) 「知識人の苦惱」 『夏目漱石全集』 「別卷」, 筑摩書房, P.154~155.
- 武田建(1975) 『親と子の臨床心理』 創元社, P.26~27.
- 長谷川慶太郎(1986) 『挑戰する韓國』 光文社, P.32.
- 夏目漱石(1966) 『漱石全集』 「第4卷 三四郎 それから 門」, 岩波書店, P.410.
- 夏目漱石(1966) 『漱石全集』 「第13卷」, 岩波書店, P.390~411.
- 夏目漱石(1993) 『道草』 「80」, 岩波書店, P.220~222.
- 橋浦洋志(1985) 「漱石における植物的なもの」 『夏目漱石Ⅲ』, 有精堂, P.165.
- 平岡敏夫(1985) 『日露戰後文學の研究』 「上」, 有精堂, P.231.
- 三好行雄編(1990) 『夏目漱石事典』 學燈社, P.396.
- 宮井一郎(1992) 『詳傳夏目漱石』 「上卷」, 國書刊行會, P.292~294.
- 山本勝正(1992) 「漱石『それから』の方法-『風』の描寫を中心に-」 (『自然日本文學』, 廣島女學院大學, P.117~157.

要 旨

今回「夏目漱石作品『それから』に表れた子供の死」について分析・点検したことを要約すると、次の四点にまとめられる。

第一に、『それから』に表れた「子供の死」は、明治時代の出産と生まれた子供の生存に関する社会像を反映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第二に、夏目漱石の妻、中根鏡子の「流産とヒステリーによる投身自殺未遂事件」は漱石の精神世界に有形・無形の影響を及ぼし、また『それから』の創作にも影響を及ぼしたものと判断される。

第三に、平岡夫婦において「子供の死」は、夫婦間の愛情に葛藤と危機を増幅させ夫婦関係に亀裂を生じさせた重大な要因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第四に、三千代の心理変化の分析を通して、結婚した夫人において「子供の存在と価値がいかほど重要であるか」を悟らせてくれる『それから』の作品描写は、夏目漱石文学の一つの特徴であることを明確かつ具体的に明らかにした。

キーワード：夏目漱石, それから, 子供の死, 投身自殺, 平岡, 三千代

투 고 : 2003. 11. 26

2차 심사 : 2003. 12. 19

3차 심사 : 2004. 1. 8

住 所 : (609-761)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014번지 선경아파트 308-1302

電 話 : 051-514-3187

E-mail : kwon6134@hanmail.net